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상파울루의 성소수자 축제 게이퍼레이드

김한철

1. 게이퍼레이드의 탄생 배경과 의미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중심 파울리스타 대로(Avenida Paulista)에서는 제21회 게이퍼레이드(Parada Gay)가 열렸다. 상파울루 게이퍼레이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캐나다의 토론토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소수자 축제로 꼽힌다. 약 300만 명이 모인 이 축제의 올해 테마는 ‘우리의 신념으로부터 독립, 어떠한 종교도 법이 아님! 세속국가를 위하여’(Independente de nossas crenças, nenhuma religião é lei! Todas e todos por um Estado Laico)이다. 유명가수인 아니타(Anitta), 다니엘라 메르쿠리(Daniela Mercury) 등의 쇼도 있었던 이번 행사에서, 유명 모델 겸 TV 사회자인 페르난다 리마(Fernanda Lima)는 “종교는 개인적 선택일 뿐 지켜야 할 법이 아니며, 법 테두리에 있는 한 무엇이든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이퍼레이드 축제의 원래 명칭은 Parada do orgulho LGBT이다. 여기서 parada는 ‘퍼레이드’, orgulho는 ‘자부심’, L은 Lésbicas(레즈비언), G는 Gays(게이), B는 Bissexuais(양성애자), T는 Travestis, Transexuais, Transgêneros(트랜스젠더)를 뜻한다. 이 명칭을 단순히 Parada do orgulho Gay, 혹은 Parada Gay라고 칭한다.

게이퍼레이드는 미국에서 1969년 6월 28일에 발생한 스톤월 항쟁



2017년 게이퍼레이드에서 공연하는 다니엘라 메르쿠리 (출처: <https://s2.glbimg.com>)

(Rebelião de Stonewall)을 기념하며 시작되었다. 스톤월 항쟁은 뉴욕시 그리니치빌리지에 위치한 작은 게이바인 스톤월 인(Inn)에 경찰이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주류면허 없이 불법으로 술을 팔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행해지던 주기적인 게이바 단속이었다. 이날의 새벽 급습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경찰이 바에 있던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체포할 사람을 추려내 호송차에 실었다. 그러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경찰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모여든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경찰의 폭력에 오랜 시간 참아왔던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당시 스톤월 항쟁에 앞장선 사람들은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멀리받고 천대받던 유색인종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였다. 오늘날 뉴욕의 부촌이 된 그리니치빌리지의 성공한 전문직 성소수자 이미지와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멀리 당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대항한 것이 스톤월 항쟁이다. 스톤월 이후 성소수자 운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분수령이 되었다. 스톤월 항쟁이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상파울루의 게이퍼레이드도 6월경에 열리는 것이다.

이 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문화와 자부심을 기념하고 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성소수자 협회가 주관한 일종의 퍼레이드 행사이다.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들은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즐기고, 자신들의 연대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살해하는 공격 앞에서 그들의 권리 존중을 요구한다. 주최 측은 동성애 혐오증에 반대하고 동성애간 결혼에 찬성한다. 2006년부터는 주요테마 역시 동성애 혐오증에 대한 투쟁으로 삼고 있다. 행사 현장에서는 피임기구도 무료로 나누어준다.

상파울루에서는 1997년 6월 28일 약 2000명이 참가하며 첫 행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행사를 지속하며 2017년에 21번째 행사를 마쳤으며, 주 무대는 항상 파울리스타 대로이다. 최근 해마다 평균 300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게이퍼레이드는 상파울루 외에 브라질 전역의 다른 도시에서도 열린다. 그 중 리우의 게이퍼레이드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통적으로 시내와 해변 사이의 부촌 혹은 시 남부에서 민간단체 ‘무지개’(Arco-íris)에 의해 행사가 진행된다.

2. 게이퍼레이드의 테마와 내용

상파울루 게이퍼레이드는 1997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테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의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식 테마는 다음과 같다.

- 1997년: 우리는 많이 있고, 모든 직업에 존재한다.
- 1998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
- 1999년: 브라질에서의 게이 자부심, 2000년을 향하여.
- 2000년: 다양성에 사는 자부심을 축하하며.
- 2001년: 다양성을 껴안으며.
- 2002년: 다양성으로 교육하며.
- 2003년: 동성애자의 정책을 수립하며.



2017년 상파울루 게이퍼레이드 테마 (출처: <http://paradasp.org.br>)

- 2004년: 우리는 가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2005년: 즉시 시민단체. 평등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 2006년: 동성애 혐오증은 범죄! 성적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
- 2007년: 인종차별주의, 배타주의, 동성애 혐오증 없는 세상을 위해.
- 2008년: 동성애 혐오증을 없애라! 진짜 세속국가를 위해.
- 2009년: 동성애 혐오증 없애고 더 많은 시민권- 권리의 평등을 위해.
- 2010년: 동성애 혐오증에 대항하여 투표하시오: 시민권을 방어하시오.
- 2011년: 서로 사랑하시오: 동성애 혐오증은 그만!
- 2012년: 동성애 혐오증은 약이 있다: 교육과 범죄화
- 2013년: 더 이상은 안 되는 옷장으로: 동성애 혐오증에 대항한 투쟁에 협동과 인식.
- 2014년: 승리하는 국가는 동성애 혐오증이 없는 국가이다: 살인은 그만! 즉시 범죄화로!
- 2015년: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고, 항상 이럴 것이다: 나를 존중하시오.
- 2016년: 즉시 성 정체성 법! 트랜스젠더 혐오증에 대항하여 모두 함께!
- 2017년: 우리의 신념으로부터 독립, 어떠한 종교도 법이 아님! 세속국가를 위하여.



2017년 상파울루 게이퍼레이드 현장 (출처: <http://www.guias.midia.guiya.com.br>)

위와 같이 테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다양성(diversidade), 권리(direitos), 동성애 혐오증(homofobia)이란 어휘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즉 게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동성애자들은 해마다 주최되는 행사를 통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동성애 혐오증 없는 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브라질 성소수자 단체는 2014년, 연평균 300여 명의 동성애자가 각종 폭력사건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동성애 증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정책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상파울루 가톨릭 대교구 산하 정의평화위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차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제20회 게이퍼레이드에서는 정치적인 구호도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당시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좌파인 노동자당 정권이 무너지고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가장 먼저 공격을 받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보수 우파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를 비난하는 구호도 등장했다.

또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브라질 기독교민주당(PSC)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의원은 “내게 게이 아들이 있다면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아들은 사고로 죽는 게 낫다”며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다.

2017년에도 역시 국가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선거를 주장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가 다수 등장하였다.

3. 게이퍼레이드의 발전사

상파울루의 게이퍼레이드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참가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5년 참가자 수는 경찰 추산 180만 명(17시에 참가중인 사람 추정)과 주최 측 추산 250만 명(퍼레이드 내내 참가했던 사람 추정)을 기록했다. 한편, 2005년 행사 주관 기관과 대학교(USP, UERJ, UNICAMP)는 참가자들이 어떤 이유로 게이퍼레이드에 참가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조사에서 57.6%는 동성애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26.7%는 호기심에, 8.9%는 동성애자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4.1%는 연애하기 위해, 1.6%는 일하기 위해, 1%는 다른 이유로 라고 답하였다. 이들 중 25.9%는 이성애자라고 밝혔다.

2006년에는 참가자 수가 더 늘어나 경찰 추산 250만 명,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 추산의 참가자 수를 공개한 해가 바로 2006년이었고, 이 참가자 숫자, 바로 250만 명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이퍼레이드로서 2007년판 기네스북에 올랐다.

2008년에 개최된 행사에서는 5월 25일 공식적인 퍼레이드가 있었고, 전날과 다음날에는 강연회, 세미나, 쇼, 공연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전통적인 활동가와 후원자 외에도 상파울루

전 시장 마르타 수쁠리시(Marta Suplicy), 당시 시장이었던 지우베르투 까사비(Gilberto Kassab), 그리고 상파울루 주지사 주제 세하(José Serra)가 참여했고, 노바 이스페란사 기독교도 단체(Comunidade Cristã Nova Esperança)와 같은 일부 종교단체의 참여를 이끌었다. 2011년에는 주최 측 추산 400만 명이 참가하여 역사상 최대의 참가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행사 20년째를 맞는 2016년에는 당시 상파울루 시장인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가 상파울루시 행사의 공식 일정에 게이퍼레이드를 포함시키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게이퍼레이드는 매년 5월이나 6월에 개최하는 상파울루시의 공식적인 행사로 변모하였고, 시로부터 재정적인 협조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에는 세속국가를 큰 테마로 삼고 축제를 진행하였다. 국가의 권력이 어떠한 종교에도 의존하지 말고 종교적인 모든 문제에 공식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며 세속주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퍼레이드에 더 많은 군중을 모으기 위해 주최 측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게이퍼레이드를 단순히 그저 그런 어떤 재미없는 행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카니발에 사용되는 차량과 유니두스 지 빌라 마리아(Unidos de Vila Maria) 삼바스쿨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상파울루시 관광청에 따르면, 상파울루의 게이퍼레이드는 브라질에서 리우 카니발 다음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이다. 또한 상파울루 카니발, 포뮬러 원(F1)과 함께 상파울루시의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하다. 이렇듯 성소수자들의 의미 있는 행사가 도시의 관광 상품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게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들에 의한,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브라질 사회의 색깔에 걸맞은 브라질다운 축제라 하겠다.

김한철 —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포르투갈어 책임교수